

# 전남도 청렴도 최하위권 탈출 실패

전남도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5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종합청렴도(2017년 7월 1일~2018년 6월30일) 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4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가운데 13위(4등급)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청렴도가 여전히 비단권을 면치 못했다.

부이별로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나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1등급 낮아진 4등급, 정책

‘태양광비리 발목’…4등급 기록 ‘바닥’

## 외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1등급씩 강등

고객평가는 2등급에서 1등급 낮아진 3등급을 각각 받았다.

지난 2016년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관련 직원이 피면된 부패사건으로 감점이 광역평균보다 높아 청렴도 상승의 밸류를 잡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주요 요인으로는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직원들의 부패

행위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15위,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 2015년 16위, 2016년 13위에 이어, 4년만에 13위로 재진입한바 있다.

김장오 전남도 청렴지원관은 “앞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토대로 도민이 행복한 청렴전남 실현을 기속화할 수 있도록 부패 취약분야 대해

중점관리 등 청렴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월 당선자 시절 도정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13위를 한 것을 비롯해 도의 청렴도가 몇 년째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에 놀랐다”면서 “도가 보고한 올해 청렴도 목표가 9위이고 다음해가 3위인데, 그러지 말고 단번에 3위로 가고 그 다음해엔 1위로 가자”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시 수영대회 道

### 공사 계획 ‘도마위’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진행하는 수영대회 경기장 주변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무 청(광신2) 의원은 5일 시 종합건설 본부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수영대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계획 중 수영대회경기장과 상관없는 지역에 공사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건설본부는 수영대회 경기장 주변과 관문도로의 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13개 노선에 3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공사 구간 13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수영대회 경기장과 전혀 상관없는 구간이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4개 노선은 광주시청 천변도로, 서문대로~효우로교차로, 유덕IC~계수교차로, 계수교차로~동립IC 공사구간이다.

당초에 광주시청 천변 도로 구간은 시청광장에서 하이아이방대회 경기, 서문대로~효우로교차로 구간은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수구대회 경기 개최 계획에 따라 2017년 공사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11월17일 국제수영연맹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하이아이방은 조선대, 수구대회는 남부대 축구장으로 장소가 변경됐음에도 시 종합건설본부는 2년이 지난 뒤에도 도로 공사 구간 변경 없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또 유덕IC~계수교차로, 계수교차로~동립IC는 주요 관문도로 정비지만, 수영대회와 상관없이 시청 방향 관문도로 공사 구간이라는 지적이다.

서은홍 기자



2019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표 배부 날인 5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전달하고 있다.

### 여수의 한 고교서 수개월 전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 고3 학생 교사 컴퓨터서 국·영·일어 시험지 빼내

#### 학교 측, 여수경찰서 수사 의뢰 및 학생 퇴학 처리

여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개월 전 고 3학생의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 A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7월 치러진 3학년의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영어, 일본어 시험지가 유출됐다. 이 시험지는 3학년 B 학생이 교사의 컴퓨터에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수능이 끝난 지난 달 16일 학교 학생들의 제보를 받은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

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학교도 최종 확인했다.

A 고교는 시험지 유출에 대한 감사와 통보가 있기 전까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감사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17일 여수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일 이 학생을 퇴학 처리 했다.

또 시험지 유출로 내신등급이 조정된 학생은 국어 과목 3명, 영어 2명, 일본어 2명으로 이들 학생을 모

두 등시 대학에 수정을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시험지를 유출과 관련한 학생은 선도위원회를 거쳐 12월 3일자로 퇴학처리 했다”면서 “성적 수정과 등급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학생들이 응시한 각 대학에 통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시험지 유출은 학교가 내신 성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심각한 사건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학생이 학교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 또한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인도 경찰, 폭동 일으킨 자경단원 3명 체포

소의 사체를 발견한 뒤 격분해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관 1명을 포함 2명을 살해한 혐의로 힌두교 자경단원 3명이 4일 체포됐다.

타워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힌두교도들은 지난 3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동물의 사체가 힌두교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지는 소로 밝혀지자 격분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 2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특히 사망한 경찰관 1명은 부검 결과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경찰은 현재 3명을 체포하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용의자 24명을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당국은 폭동을 주도한 자경단원을 찾아내기 위해 현재 특별 조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경찰은 순직한 경찰관 가족에게 약 7만1000달러(약 8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경찰당국은 당시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경찰을 향해 둘을 던졌다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포탄을 사용했다”고 CNN과 4일 (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말했다.

CNN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014년 총선에서 승리했던 사실에 주목하며, 그가 힌두교 자경단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 브라질서 뇌사여성 자궁이식 출산에 성공

브라질에서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 받은 여성이 사상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했다고 영국 의학잡지 랜셋이 5일 전했다.

집지에 따르면 브라질 삼파울루 대학 의대 연구팀은 2016년 9월 지주막 하(蜘蛛膜下)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진 45세 여성의 자궁을 적출해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미아·로키탄스키·쿠스터·하우저(MRKH) 증후군’의 32세 여성이 이식했다.

연구팀은 자궁이식 수술을 받은 여성에 지속적으로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투여하고서 7개월 후 체외수정으로 배양한 남편의 수정란을 착상시켜 임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여성은 지난해 12월 임신 35주차에 제왕절개를 통해 무게 2.55kg의 건강한 여아를 낳았다고 랜셋은 전했다. 자궁이식을 받은 여성은 출산 후 다시 자궁을 적출했다.

연구를 주도한 다니 에이젠베르크 상피울루 대학 부속병원 의사인 뇌사자에서 자궁을 이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살이있는 기증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은 채 자궁 이상 때문에 불임으로 고민하는 여성에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궁이식 경우 가족친지의 제공을 받는 형식으로 스웨덴 등에서 출산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도 게이오(慶應) 대학 연구팀이 MRKH 증후군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친지에서 제공 받은 방식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받아 출산까지 한 것은 세계 최초다.

연구팀은 대학과 브라질 윤리위원회 승인을 얻고서 자궁이식을 시행했으며 제공자에는 전혀 위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 멕시코서 강도들 총격전으로 6명 사망

멕시코 중부의 고속도로에서 강도로 의심되는 6명이 간단들 사이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숨졌다고 멕시코 연방 경찰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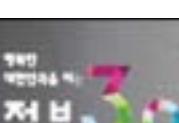
경찰은 이번 총격전이 중부 주에 브라질을 관통하는 간선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시당자들은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들을 터는 간단의 일원인 것으로 발표했다.

멕시코 언론들은 시당자들 일부는 총을 가진 채 죽어있었으며, 이번 총격전은 간단 사이의 영역 다툼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격전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리라도르 신임 대통령이 전 정권이 범죄 및 폭력과의 전쟁을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로페스 오브리라도르 대통령은 “그 동안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일반 국민과 대중의 안전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였다”고 비난했다.

일기 취임한 그는 앞으로 자신은 미약 조직들과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살인, 강도 등 일반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는 검진기준이 혼잡화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우리 미처 이는 요...  
자폐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 in  
건강한 행복, 건강한 생활